

사회사업실천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제언: 사회사업실천의 임상중심경향과 전문화지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 미 원*

- I. 머리말
- II. 사회사업의 사회경제적 전제 -노동의 사회, 역사적 형태
- III. 사회사업의 사회적 기능
- IV. 사회사업의 사회적 기능 확립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전문화비판
- V. 사회사업의 사회적 기능과 정체성대안의 전제
- VI. 맺음말

I. 머리말

한국은 그 동안 사회복지의 각 방향에서 이론 및 실천분야의 큰 발전이 있어 왔다. 특히 임상사회사업실천영역에서의 눈부신 발전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 및 실천가들의 이론과 실천방법 양자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그 토대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주지하다시피 여러 학파의 가족치료를 비롯하여 인간관계를 훈련시키고 인성을 개발하는 각종 프로그램들과 기법들이 소개되고 한국적 상황에서 이를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다방면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사회사업실천방법을 전문화시키고 전문사회복지사들을 배출하려는 노력들도 함께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는 실로 사회복지실천분야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양상이라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에게는 여전히 원론적인 질문이 제기되는데¹⁾ 그것은 무엇보다도 임상사회사업이 오늘날 지향하는 전문화의 경향, 각종 치료학파들의 유입과 기법들의 적용, 대학의 학생들에게 전문가가 될 것을 은연중 요구하는 분위기 등이 과연 사회복지의 발전과 정체성확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1) 이러한 문제제기는 물론 연구자의 편협된 편견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정책과 임상 등에 대한 통합적 인식의 증가와 사회사업실천영역의 다양한 방향연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 이론의 토대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립에 긍정적이기만 한가 하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서구이론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비판과 더불어 사회사업의 정체성과 방향정립을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업의 경향은 임상과 치료방법들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집중된 감이 있으며, 그 결과 사회사업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 혹은 사회사업을 정치경제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제도, 이를 이해하는 실천가의 세계관 따위보다는 새로운 치료개념이나 방법들에 대한 소개가 주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사회사업실천을 양적, 질적으로 발전시키고 개념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지향점들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단지 현상의 양적, 형태적 변화(예컨대 사회복지제도의 양적 변화나 실천형태의 변화등)만이 관심의 대상이어서는 안되고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 놓여 있는 사회사업실천 개념과 가정을 과학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통해 가정의 질적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²⁾ 다시 말하여 그 비판은 보다 현실적인 사물인식과 방법론적 가정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기존의 사회사업실천 패러다임은 여러 측면에서 오랫동안 사회과학적 가정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예컨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사회의 스테레오 타입”을 비판하는 시도들 속에서 흔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정상”에 대한 “객체”의 적응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³⁾거나 사회사업의 사회통제적 기능이 사회에 적용하지 못하는 소수에 대한 억압적 기제로서 작용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비판들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에 대해 그 동안 제시된 대안들로는 사회복지사의 자아인식 개발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강요나 가치주입 등을 방지한다거나, 엄정한 윤리강령과 사회적 책임하에 전문성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대안들에 관한 폭넓은 관심에도 불구하고⁴⁾ 실제로 이러한 대안들이 내포할 수 있는 허구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데 그 것은 사회사업의 태동과 발전이 그 자체 역사적, 사회적 고리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나 기능, 앞으로의 발전 대안들이 탈역사적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로 우리의 사회사업실천의 주 관심사가 새롭고 효과적인 치료방법들에 대한 관심에 집중된데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사회사업의 사회경제적 전제를 밝힘으로써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갖는 사회사업의 기능을 살펴 보고, 이를 기초로

2) Martin Rudolf Vogel, "Sozialwissenschaftliche Kritik an der Gesellschaftspraxis - erlaeutert an der Problematik einer Fuersorge-Theorie", in Hans-Uwe Otto/Siegfried Schneider(Hrsg.), *Gesellschaftliche Perspektiven der Sozialarbeit*, Neuwied und Berlin: Hermann Luchterhand Verlag, 1973, p. 213.

3) 앞글 p. 218.

4) 사회사업의 정체성과 전문성확립 등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것.

사회사업, 특히 임상사회사업⁵⁾이 지향하는 바로서의 전문적 원조기능의 확립, 전문성의 확립등이 얼마나 현대 사회제도내에서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안들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연구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다소 원론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임상사회사업분야의 관심이 치료방법들의 세련화, 전문화에 주로 치중되고 있다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사업실천종사자들의 관심의 영역을 넓히고 사회사업실천의 보다 넓은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사료된다.⁶⁾

II. 사회사업의 사회경제적 전제 -노동의 사회, 역사적 형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사업의 기능과 역할, 위상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임상사회사업의 발전대안을 제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사업이 사회의 노동분업속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물질적 사회관계의 변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여하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현존 사회제도안에서 사회사업의 기능을 파악하려면 무엇보다도 그것의 사회경제적 전제를 분석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관계하에서 역사적으로 전개된 노동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 사회제도내에서 노동의 특성을 파악하면 사회적 노동의 부분으로서의 사회사업의 특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생활과 관련한 보편적 의미에서 볼 때 노동은 사회경제적 측면의 기본적인 형태로서 인간과 자연사이의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을 통해 인간

- 5) 사회사업, 사회복지사업 등과 관련한 불필요한 개념상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사회사업의 개념은 치료적, 임상적인 사회사업실천임을 명기한다.
- 6) 예컨대 사회체계이론은 60년대에 사회적으로 크게 상승했다가 70년대에 쇠퇴한 이론으로 그것은 이미 사회학에서 그 기반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 이유를 여기서 명확히 상기하지는 않겠지만 (조지 리처, 최재현역, 현대사회학이론, 서울:형설출판사, 1994 참고할 것)이러한 이론의 부침은 그 나름의 사회분석패러다임으로서의 이론적 한계에 기인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론, 혹은 패러다임이 갖는 사회정치적 의미와 한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전히 사회체계이론을 임상에 적용한 가족치료이론, 사회사업통합적 방법론 등을 실천에 적용하도록 배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기초한 인간관계기법따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사업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부하다는 일부의 지적은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지적일 수 있다.

은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한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며, 동시에 새로운 생산물에 의해 새로운 욕구를 창출한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로서 합목적적인 노동은 구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기여하는 사용가치의 생산과 관련된다.

그런데 생산물의 형태는 역사적으로 규정되므로 자본주의하에서의 상품생산은 이제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전자본주의사회에는 사용가치 자체가 기본 목적이었지만 이제 자본주의적 상품생산하에서는 사용가치 생산이 자본의 지속적인 축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⁷⁾ 그리고 노동력은 이러한 생산적 노동을 위해 투하된다. 즉 전자본주의생산양식에서는 노동력의 사용은 구체적이고도 유용한 생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거기서는 노동의 분업에도 불구하고 생산물생산자는 노동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전통적 기술과 자연을 소유하고 이를 스스로의 생산수단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산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자신의 인성을 개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생산과정의 목적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는데 여기서 생산의 목적은 먼저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있다. 자본주의적 의미에서 생산적 노동은 단지 생산과정의 초기에 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만을 뜻한다.⁸⁾ 이처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가져오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으며 더 이상 생산과정을 독립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생산물을 전유하지도 않는다. 생산물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으로 생산자에게는 소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생산과정의 중심목적은 이윤을 생산하도록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생산적 노동이란 자본의 의미에서 단지 이윤을 생산하는 노동이다.
3. 노동력은 자신의 사용가치에 따라 판매되는 것이므로 이제 노동력의 이용은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생산자의 관심과 욕구가 생산과정에서 만족될 수 없으므로 생산자 개인의 개별성이 침해되거나 스스로 자신의 개별성을 지키고자 방어해야 한다.
4. 고도화된 노동분업은 동시에 고도화된 통합과 조정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생산물의 창출을 위해 사회적 통합, 즉 사회적 공동노동이 요구되지만 사회적 생산물은 소유가 되지 못하고 생산수단소유자에게로 귀속된다.⁹⁾

사회사업도 인간행동의 한 부분이며 변증법적, 역사적 과정 속에서 사회적, 역

7) Eberhard Brandt, *Sozialarbeit in antagonistischer Gesellschaft. Ein Beitrag zur Theorie der Sozialarbeit*, Koeln: Pahl-Rugenstein Verlag, 1983, pp. 60-62.

8) 앞 글, p. 64.

9) 앞 글, pp. 71-72.

사적 형태가 구성된다고 볼 때 이러한 결과들이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사회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첫째로 사회사업을 사회적 노동분업의 테두리안에서 사회적 노동이라고 볼 때, 그것의 역사적 특성과 기능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자본주의 관계하에서의 노동의 성격을 통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은 끊임없는 이윤의 확대를 위한 생산이며, 그것은 곧 확대재생산, 즉 축적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축적의 법칙하에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복지의 기능과 대상을 규정한다. 즉 자본주의하의 축적법칙은 임금노동자의 구조적 빈곤화경향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발달한 제도가 사회복지제도(넓은 의미에서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사업을 포괄하는)이다. 사회정책은 주지하다시피 그 중심 대상이 임금영역과 관련된 부분이다. 예컨대 임금노동자가 실업이나 폐질, 질병 등으로 위협을 받을 때 사회보험정책, 노동자보호정책 등을 통하여 사회는 이 위협에 대처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포함되지 않는 임금노동의 다른 일부, 즉 사회보험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만성질환등으로 만성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정신질환자,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이 질병, 폐질, 실업 등으로 빈곤이나 정신적 위협을 받을 때 임금영역밖에 존재하는 사회정책적 조치를 통한 사후보장의 원조를 필요로 한다. 바로 후자와 관련된 사회정책적 조치를 사회사업이라고 명할 수 있다.¹⁰⁾

자본주의 생산과정의 정치경제적 분석은 자본의 목적이 지속적인 축적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윤창출은 노동력의 전용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지는데 노동력은 단기적 재생산(영양, 노동능력의 재생 등)뿐 아니라 장기적 재생산(학교교육, 직업교육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때 자본축적이 보장되도록 사회적 노동력의 재생산 과제를 부여받는 기관이 국가이며, 이 보장과제는 사회정책과 사회사업을 통해 실시된다. 즉 한편으로 임금노동자 스스로 조세 및 기여금을 통해 자원마련에 기여하는, '임금에 토대한' 사회정책적 조처에 의지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카테고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임금노동자의 구조적 빈곤화, 지속적인 인간성의 파괴, 노동으로 부터의 축출 등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이로 인해 빈곤의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임금노동자들의 문제이지만 사회전반(자본)에도 위협이 된다. 인성을 파괴하는 조건은 많은 임금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축적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노동력을 무익한 것으로 만들고 구매력을 가진 인구를 줄일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정책적 조처들과 더불어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사업을 동시에 담당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된다.¹¹⁾

10) Ebehard Brandt, 1983, p. 121.

사회사업실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언

이처럼 일면에서 자본의 압력과 다른 일면에서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의 압력을 통하여 규정되는 국가의 사회복지조치들의 목적은 다음 세가지로 압축된다.

1. 노동능력이 있는 임금노동자 및 미래의 임금노동자(아동)의 노동력의 창출, 재생산, 개선. 이 목적은 자본의 이해를 위해서 뿐 아니라 임금노동자들의 이해와도 관련이 있다.
2. 임금노동자, 특히 노동시장에서 축출된 집단에 대한 통제(형법을 통한 사적소유의 보장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위법시 징벌, 감시, 상담활동 등을 함으로써, 혹은 시설수용, 청소년보호법 등과 같은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임금노동자에 대한 통제는 자본축적이 위협당하지 않게 하고 사적소유를 보호하려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3. 법적으로 입법화된 특별조치를 통해 손상당하고 배제된 자들을 위한 원조와 도움을 주는 것 (아동및 청소년보호, 장애인을 위한 재활, 통합조치, 가족상담 및 치료 등). 이것의 목적은 특히 빈곤으로 위협받는 자들을 돌보는 한편 빈곤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회불안과 갈등을 감소시키려는데 있다.

그리고 이 세가지 목적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제도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1. 미숙련노동력의 개선 및 노동력 창출, 재생산을 위한 물질 토대의 준비 및 보장(재생산과정에서의 지원에 속하는 교육투자, 아동수당, 사회보장제도 등)
2. 태도와 행동이 사회체제에 경향적으로 위협이 되는 개인들의 통제
3. 빈곤의 개별화 및 빈곤의 탈정치화, 이로 인한 원조의 개별화로 자본주의 생산과정의 사회적 결과를 완화시키는 것.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조건하에서 사회복지사업제도는 노동분업의 테두리속에서 재생산영역에 속하는 사회적 노동이다. 즉 사회사업은 그 자체로는 비생산적 노동이며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다. 앞서 자본주의적 의미에서 생산적 노동은 단지 생산과정의 초기에 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만을 뜻한다고 하였는데 그런 점에서 사회사업은 생산적 노동에 속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업은 전체 사회의 노동력의, 특히 인성적, 신체적, 물질적 손상과 배제의 위협을 받는

- 11) 그러나 물론 자본의 이해만이 사회정책적 국가조치를 규정짓는 것은 아니며, 노동운동, 노동력과 인간성을 위협당하거나 훼손된 개인들의 자조집단, 이익집단 등의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임금노동자들의 행동도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사업의 형태를 규정하는데 영향력을 가진다.

노동력의 창출, 재생산, 개선, 보장의 과제를 수행하는 사회적 필요노동이다. 바로 이러한 특성이 자본주의하에서 사회사업의 지위를 규정하는 요소가 된다. 사회사업의 발달 역사를 살펴 보면 그 것이 계급대립의 결과 및 도구의 역사적 반영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달성된 사회사업의 사회적 기능은 일면에서 노동력의 전용을 집중화시키고 다른 일면에서 개인의 노동력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손상된 자들을 보호,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사업은 비생산노동이면서도 필요노동으로서의 특성을 보유한다. 왜냐하면 한편에서 노동력의 생산과 보장을 위해서 노동력의 일부 혹은 전체가 손상된 자들을 돌봐주고 통제함으로써 자본에 복무하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노동력의 재생산, 생존보장을 위한 투쟁,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볼 때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사업의 주 기능은 재생산과정에서의 통제와 보호, 생존보장을 위한 원조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통제의 대상이자 보호와 원조의 대상이기도 한 복합적 특성을 내포하게 된다.¹²⁾ 이제 이러한 사회경제적 전제를 기초로 형성된 사회사업의 기능을 보다 깊이 살펴 보고, 이를 기초로 사회사업이 지향하는 바로서의 전문적 원조기능의 확립, 전문성의 확립을 비판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대안들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Ⅲ. 사회사업의 사회적 기능

1. 사회통제의 기능

사회사업이 사회통제제도의 일부로서 기능한다는 사실은 사회사업의 이론과 실천 양자에서 인정되고 있다. 사회사업에서 통제의 문제는 흔히 개별사회사업의 상담이나 치료활동들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왔다.¹³⁾ 사회사업의 상담활동이 사회제도의 안정화에 기여하며 사회의 status quo의 정당화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사회복지사는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

12) Eberhard Brandt, 1983, pp. 122-126.

13) 사회정책에서도 임금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통제기능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다. 공적부조의 사회통제기능에 대해서는 김미원,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 양옥경외, 『사회복지실천과 윤리』, 서울: 한울, 1993, 제12장을 참고할 것.

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일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이 때 바람직한 행동이나 태도는 기본적으로 규범에 기초하여 규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정의는 시대적 변화에 종속될 뿐 아니라 각 사회의 내부 상황에 따라서도, 즉 계층이나 교육수준, 상황적 요소, 이해관계 등에 따라서도 다양해 진다. 어떤 한 행동의 심급(Instanz)으로서 형성된 사회복지사업은 그러나 그 활동을 통해 스스로 규범을 정의하는 과정에도 참여한다. 사회복지사업은 이미 정의된 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업무를 통하여 스스로도 규범의 참여 정도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일탈상태의 형성과 확인에 기초한 사회복지사업의 “치료적” 활동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라는 핵심관계에 기초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에 상호작용하는 다른 사회적 행동영역들(예컨대 일탈적 상황의 형성에 기여하는 환경들) 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영역들에는 정상성에 대한 일반사회의 정의, 규범과 기준들이 속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범이 사회제도에 내면화되고 일상의 전형적인 행동모델이 정상으로 정의되는 한 이와 다른 행위나 태도는 일탈행동영역에 속하게 되며 억압적으로 다루어 질 수 밖에 없다.¹⁴⁾ 왜냐 하면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자본주의체제에 경향적으로 위협이 되므로 이들에 대한 통제가 사회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1) 규범과 기준

사회사업은 인간의 욕구가 좌절되거나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도록 돕는 서비스라고 정의된다.¹⁵⁾ 많은 경우 환경에의 부적응은 대개 인성의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개인의 인성을 통합시키고 행동을 수정함으로써 사회환경에 적응시키는 것이 전문사회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사업은 개인의 인성을 수정하고 사회심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먼저 환경에 대해 부적응을 보이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클라이언트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든 정의를 내리고 이 정의(혹은 진단, 평가등으로 표현되는 행위)를 통하여 개입활동을 하게 된다. 이 정의에는 “방임”, “비정상”, “충동적”, “노동의사가 없다”, “적응력의 부족” “불안정한 인성” 등 다양한 개념들이 속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용어들은 대부분 일탈행동의 개념속에 들어 가는 용어들이다. 일탈행동은 그와 구분되는 정상행동이 있다는 것

14) Joachim Matthes, "Sozialarbeit als soziale Kontrolle?," Hans-Uwe Otto/Siegfried Schneider(Hrsg.), 1973, pp. 119-121.

15) 김영모, 「사회복지학」, 서울: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1995, p. 211.

을 전제한다. 이 정상행동은 인간행동의 규범으로 규정되고 개인은 이에 순응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회사업의 클라이언트는 대부분 이 규범을 침해한 사람으로 예컨대 학교에 결석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권위에 도전하는 자, 또는 자기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규범을 지키도록 하는 “사회통제”가 가해진다. 건강한 가족, 보호받는 청소년, 정상적 발달, 질서, 위생, 생활능력, 근면성, 학습의욕 등이 이러한 통제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기준들은 사회화의 중요한 규범으로 규정되는데, 이 규범들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통합과 재사회화는 탈계급적이고 중립적인 의미로 적용되지만 그 것은 그러나 영원한 규범에 대한 가치중립적 적용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제된, 사회의 생산과정으로의 재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¹⁶⁾

2) 적용으로서의 재사회화

사회사업의 핵심은 클라이언트가 다시 사회의 규범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다. 재사회화란 기존의 사회구조와 가치에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사회사업의 “통합의 기능”은 인간관계에 손상을 입었거나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통합원조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개별사회사업은 클라이언트가 전체 환경이나 환경의 일부에 보다 더 잘 통합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능력을 동원시키고자 한다.¹⁷⁾ 혹은 가족치료나 집단치료등에서 보듯이 가족과 같은 집단이 보나 나온 사회기능을 하도록 돕는다. 어떤 경우에서나 사회사업의 출발점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이다. 그리고 사회사업의 목적은 클라이언트를 “보다 능력있게” 만드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를 기존 사회에 재통합시키려는 사회사업의 목표는 흔히 민주, 법치국가의 이상속에서 개인에게 행복과 만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된다.¹⁸⁾ 그러나 자본주의제도하에서 고도화된 노동분업은 동시에 고도화된 통합과 조정을 필요로 하지만 이 통합은 개인의 전인적 통합이라기 보다 생산관계에 개인을 조용시키는 과정인 것 처럼, 클라이언트를 재사회화시켜 통합하려는 것은 그의 인성과 사회적 조건들의 통합이라기 보다 그를 소외시키고 있는 기존의 사회제도에 대한 귀속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데서 그 한계를 찾을 수 있다.

16) Walter Hollstein, "Sozialarbeit im Kapitalismus. Themen und Probleme," Walter Hollstein und Marianne Meinhold(Hrsg), *Sozialarbeit unter kapitalistischen Produktionsbedingungen*, Frankfurt am Main:Fischer Taschenbuch Verlag GmbH, pp. 16-18.

17) John Shaw, *The Self in Social Work*, Sondon and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1974 등을 참고할 것.

18) Walter Hollstein, 1975, p. 10.

2. 임상사회사업의 원조기능

“원조”라는 개념하에서는 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기여하는 개념들이 연상되며, 일반적으로 자발적, 시혜적, 기대하지 않았던 것 등의 개념들과 연결된다. 이러한 연상행위는 물론 사회제도의 특정상황의 표현들로서 예컨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원조를 부여할 때 그 상황에 관여된 사람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며, 상호행위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등에 따라 그 행위규정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원조는 상호기대 구조를 통해 정의된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유형과 관습, 제도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원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덕적 요구로서 받아 들일 것인가, 사회적 제도로써 받아 들일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 행위로서 규정할 것인가는 소위 원조대상으로 고려되는 사회적 문제를 어떤 사회적 제도(Einrichtung)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와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과거 봉건사회에서 상부상조는 상류계급의 규정된 의무로서 도덕적이고 일반화된, 계층귀속적인 기대구조와 관련되어 있었다.¹⁹⁾ 그러나 근대사회로 들어 오면서 이러한 관계는 무너지고 기능적으로 분리되고 전문화되어 졌으며 이렇게 조직화되고 전문화된 업무를 사회복지사업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토대는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물질적 토대의 변화에 기인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복지사업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분석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삶의 과정에서 사회사업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므로 이제 사회사업은 지금까지 전통적 사회사업을 둘러 싸고 있던 “빈민의 뉘새”로 부터 벗어 날 수 있게 되었다. 즉 사회사업은 탈계급적인 사회속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복지업무로 변화하는 것이다. 빈민구호와 자선으로 표방되던 초창기 사회사업은 사회의 극빈계급을 위한 원조를 주로 실시하였으나 현대 사회복지사업은 계급적 특성을 상실하였으며 이제 사회사업은 모든 계급의 사회적, 개인적 조건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게 사회문제도 물질적 궁핍보다는 인간관계의 손상, 적응의 어려움 등이 관심을 끌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사의 중심업무는 물질적 원조에서 사회심리적 원조로 변화하였고 사회사업의 임상적이고도 치료적인 면이 중시되게 되었다. 즉 행동장애, 심리적 욕구, 행동을 조절하는 것 등에 관심을 갖는 직업으로 변화하였다. 사회사업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 주 관심을 두게 되었고 사회에 대한 관심은 초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 들게 되었다. 사회사업의 주 목표는 부적응하는 개인이며 개별화원칙이 근대 사회사업의 “치료”를 규정한다. 따라서 사회사업의 ‘사회적 원조’는 ‘개인에 대한 원조(personal help)’에

19) Niklas Luhmann, “Formen des Helfens im Wandel gesellschaftlicher Bedingungen,” Hans Uwe Otto/Siegfried Schneider(Hrsg), p. 21.

다름아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수많은 개입모델들과 실천방법들이 개발되었고 사회사업의 원조업무와 정체성 확립이 이루어졌지만, 어떤 면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그 것은 두가지 면에 기인한다. 하나는 사회사업이 사회심리적 원조로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계급성을 상실함으로써 빈곤의 개별화 및 빈곤의 탈정치화, 이로 인한 원조의 개별화를 심화시키고 그 결과 자본주의 생산과정의 사회적 결과를 완화시키는 기능에 충실해졌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바로 이런 계급성과 역사성을 상실함으로써 나타난 정체성은 결국 그 토대(원조의 토대를 형성하는 빈민계급)마저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문적 직업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욕구에도 불구하고 일할 대상이나 업무는 모호한 현재의 상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오늘날 사회사업으로 불리는 사적 및 국가의 빈민구호와 보호역사는 시민사회구조의 성립과 함께 시작한다. 그러나 초기 사회사업의 역사적 뿌리인 자선제도로부터 오늘날의 사회사업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보유하고 있는 원칙들이 있는데 이 원칙들은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사회사업의 원조기능을 규정하는 것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보충성의 원칙 : 개인이 더 이상 스스로를 도울 수 없거나 다른 사적 차원의 도움(가족이나 친척)을 얻을 수 없을 때 원조를 보충해 준다.
2. 개별성의 원칙 : 원조를 받게 되는 이유와 원조는 개별적으로 주어 진다.
3. 교구원칙 : 지방자치구나 교구가 그 지역의 빈민을 스스로 돌봐 주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다양하게 사회사업원조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개별성의 원칙은 여전히 사회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고수되면서 개인에 대한, 개별화된 대책으로 문제의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이차적으로 보게 하는 원조의 정치적 특성을 드러낸다.²⁰⁾ 사회사업은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주장하고 사회적 관심을 강조하지만 기존 사회의 Status quo와 정상성을 동일시하는 한 여기서 벗어난 개인이나 가족에게로 그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사회사업은 개인의 사회종속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 개인의 곤궁은 부적응의 결과일 뿐 아니라 사회와 집단규범, 편견, 차별, 정치 경제적 종속성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컨대 슬럼지역의 자녀들은 정상으로 태어나서 환경으로 인해 곧 병들어 간다. 이들은 저소득지역의 파괴적인 분위기, 손상된 가족분위기, 소외 등으로 사회화 기회

20) Eberhard Brandt, 1983, p. 21.

사회사업실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언

를 잃고 반사회화되어 가며, 이들이 자라나면 결국 부모들처럼 실패하고 빈궁을 재생산한다.²¹⁾ 이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 대한 개별치료는 곤궁을 야기하는 객관적인 조건에 알리바이를 주고 개인만 치료하는 것이 된다. 이런 경우 치료는 진실로 비정상적인 정상성에 개인을 맞추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는 일면에서 개인이 경험한 거절과 적대감을 사회에 대해 되돌리는 절망적이고 부정부적이며 파괴적인 방식의 사회와의 교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사업도 이런 점을 인정하고 환경적 영향을 중시하여 언제부터 클라이언트가 손상을 입게 되었는지, 행동에 이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언제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반사회적이 되었는지를 조사하지만,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후 화재현장을 찾는 소방관처럼 이 일은 대개는 이미 늦은 시기에 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은 대부분 국가, 교회, 사설기관과 같은 기관에 속해 있다. 기관의 조직은 대개 관료화된 형태로 역할분담, 위계서열, 통제, 규정 등이 사회사업원조 업무를 특정 태두리안으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사도 조직에 순응하도록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주는 원조는 처음부터 제한적이다.

이처럼 대개는 이미 뒤늦은 시기에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사회사업원조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즉 정상과 규범성을 상징하는 원조제공자와 약하고 일탈적인 원조수급자의 관계속에서 다시 왜곡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자아인식개발과 정체성의 확립을 통해 불필요하게 클라이언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들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해도 재사회화와 통합이 목적인 기존의 원조 패러다임에서는 이러한 왜곡이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

Dieter Wartenweiler는 사회사업실천 패러다임을 C.G. Jung의 원형개념에 근거하여 분석하면서²²⁾ 사회사업에는 원칙적으로 밝음과 어두움, 옳은 것과 그른 것 등의 원형적 차이점들이 강조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찾

21) Graf/Raiser/Zalfen, *Sozialarbeit im Obdachlosenbereich*, Berlin: VSA GmbH, 1976; 김영석, 「도시빈민론」, 서울: 아침, 1985 등을 참고할 것.

22) Dieter Wartenweiler, *Sozialarbeit-Seelenarbeit, Eine berufliche Herausforderungen*, Bern; Stuttgart: Haupt, 1989, pp. 81-92. 원형의 개념은 Jung에 의해 심층심리학에 도입되었는데 옳은 행위의 전형적인 형태, 반응이 규칙적으로 되풀이 되는 형태 등과 관련하여 “사물을 파악할 때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이 개념을 정의한다. 만약 한 개인의 의식과정과 행위유형 등에서 규칙적이고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이는 원형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Jung은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즉 인간이 세상을 내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원형에 의해 제한되며 이런 점에서 원형은 인간의 의식발전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 오는 클라이언트는 국외자로서, 알콜중독자로서, 정신질환자로서, 비적응자로서 나타나는 반면에 사회복지사는 원조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의 어두움의 상황을 바꾸는 역할이 주어 진다는 것이다. 대개의 개인이나 사회는 그 자체 명암과 옳고 그름을 동시에 갖고 있으나 사회복지사가 속한 “깨끗한” 일반시민들은 자기자신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바라 보지만 타인은 “전염병환자”처럼 다루어 그들을 치유하려고 한다. 물론 어두운 면이 사회의 통합된 일부인 한 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회전체(사회제도로서 표현될 수 있는)의 책임이지만 사회는 더 이상 이를 전체의 문제로 보지 않고 “어두움”의 문제로서 회피하면서 가장 단순한 해결 방법을 택하는 데 이 것이 바로 이 증상들을 눈에 안보이게 감추는 일이고 이를 위해 사회가 위임한 것이 사회복지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다고 Wartenweiler는 주장한다. 이제 사회복지사는 사회전체의 책임을 양도받고 인간의 어두운 면을 제거시켜야 되는 불가능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스스로 도움이 필요하여 상담받기를 원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에게 보내지며 여기서 도움을 청하는 자, 환자 혹은 약자로서 클라이언트와 원조자, 치료자로서 사회복지사와의 관계가 설정된다. 이 관계에서 클라이언트는 종종 그의 삶을 이끌 스스로의 의지나 용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선한 면, 밝은 면을 사회복지사에게 투사한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 관계는 클라이언트가 통찰력이 없거나 사회복지사의 원조를 받아 들일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물론 Wartenweiler의 이러한 주장은 다소 과장된 주장이고 원형이라는 개념자체에 대한 논쟁들과 더불어 이를 사회사업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²³⁾ 그러나 사회제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통찰력이 없는 사회복지사는 쉽게 이분법적인 역할 분할에 빠져 들 수 있으며 원조라는 형식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복지사업은 클라이언트의 자아실현 능력, 자기결정권 등의 가치를 강조하지만 사회복지사에게 “현자”의 지위를 부여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스스로에 대한 자기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 다시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인 통합의 진정한 성격이 드러 난다. 즉 그것은 클라이언트가 인성과 사회적 조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문제의 원인이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 스스로의 결핍, 어두운 면, 일탈, 무능력에 있음을 인정하고 사회의 주류관계로 재편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23) 원형개념은 과학이 측정할 수 있는 한에서의 후천적 특성, 혹은 기억과 같은 심상이 유전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 왔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사회복지실천의 특징들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설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Wartenweiler는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실천의 기능과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 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적 틀로서 보고 있다.

IV. 사회사업의 사회적 기능 확립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전문화비판

1. 전문성 확립의 사회경제적 전제

전문화란 직업의 의미가 직업이 지닌 여러 가지 특성들과 용해되어 그 특성들 만으로도 직업정체성이 인지되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화가 증가하면 업무와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주어 지는데 이는 실천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전문지식을 토대로 더욱 넓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 즉 외부의 압력없이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스스로의 결정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회사업이 전문화를 지향한다는 것은 직업적 역할의 근거를 관료조직과 결부된 지위가 아니라 전문지식을 근거로 사회적 지위를 재가받음으로써 독립적인 전문성의 역할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조건하에서 직업이해와 직업역할은 지적활동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생산 및 재생산과정에서 주어 지는 과제를 통해 정해진다. 사회복지실천에서 흔히 지적되는 자원의 결핍현상에도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 미혼모, 빈곤가족들을 위한 원조가 부족할 때, 만성적 고통의 제거나 경감을 위한 공적과제(노동력의 빠른 회복이 기대될 수 없는 자에 대한 원조따위)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 다른 분야들에 비해 적을 때, 병원 등의 시설에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기 보다 과거에 이미 '증명된' 방법들을 고수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교육제도, 보건, 연금제도 등에 있어서 불충분한 규정, 부족한 기간구조, 환경보호, 문화, 사회시설과 같은 집합적 요구에 대한 등한시 등도 역시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자본주의의 법칙성에서는 이윤을 가져오고 수익성을 증명하는 것만이 추구될 수 있으며, 따라서 수익성있는 사업이 우선순위로 취급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된다. 물론 비수익사업이라도 교육제도, 도시건설, 문화, 여가시설, 공공보건제도 등과 같이 기존의 사회, 정치적 상황하에서 물품생산을 위해 투자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분야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 지려면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적 투쟁과 합의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지적들은 당연히 사회사업에도 해당된다. 노동과정의 물적 생산이 이윤을 가져오는 것과 달리 사회사업은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하지 못하며 반대로 노동과정에서 얻은 이익에 의해 만들어진 비용을 써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 생산조건하에서 사회사업은 비생산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사회사업활동은 직접적으로 자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부대비용(Nebenkosten)에 속하며 이 지출이 증가

할수록 자본의 이윤과 축적율은 낮아지므로 자본가는 사회사업의 비생산적 급부를 위한 지출을 줄이고자 노력한다. 사회사업은 노동력의 재생산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으며 노동력재생산이 위협에 빠졌다고 간주될 때 사회사업은 비로소 노동력을 다시 생산과정의 요구에 적당히 조율시키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사회제도내에서 사회사업의 위상과 지위의 불안정성, 전문성의 결여 등은 따라서 자본주의적 법칙의 표현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회사업은 단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새로운 자기이해와 노력을 통해서 전문성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사업의 개선과 발전이 자본에 유용하다고 간주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얻을 수 있게 된다²⁴⁾는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전문성의 정치, 사회적 의미

사회사업은 사회적 노동분업의 테두리안에서 사회적 노동이며, 그것의 역사적 특성과 기능은 자본주의 관계하에서의 노동 및 생산관계의 성격을 통해 규정된다는 점이 이제 명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위상의 부족, 자원의 결여, 정체성의 위기 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전문화가 제시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회사업은 인간을 원조함에 있어서 되는 대로 하거나 시행착오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개인이든 집단이든 지역사회이든간에 문제해결의 기초로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전문적 서비스가 될 것을 주장한다.²⁵⁾ 사회사업의 전문화는 역사적으로 자선의 형태로 이루어지던 원조방식을 극복하고 사회심리적 서비스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자선가는 주로 그 사회의 유능한 지배계급들이었고 이들은 자선을 행하는 한편 자선수혜자들을 사회의 패배자로 낙인찍는 이중의 잣대를 사용하였다.²⁶⁾ 뿐만 아니라 자선은 주로 가난하고 돌볼 사람없는 노인이나 장애인, 고아 등과 같이 특정 인구군의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외주의적 접근 방식을 택한다. 이러한 방식은 설사 제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도 자체를 변화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적은 부분부터 고쳐야 한다는 주장, 특정서비스가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하면 기금을 모금하기도 쉽다는 것,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이 주어지므로 비용효과적이라는 것 등의 이유로 정당화 내지는 합리화된다. 이러한 주장들의 타당성 여

24) Walter Hollstein, 1975, pp. 35-37.

25) 장인협,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p. 10.

26) Douglas P. Biklen, *Community Organiz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3 p. 65.

사회사업실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언

부는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이고도 사적인 형태의 자선이 중심이 될 경우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주류제도의 결핍을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오히려 사회의 특정집단을 위한 서비스도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²⁷⁾

그렇다면 사회문제해결책으로서 자선의 대안은 무엇인가? 사회사업의 발달과정에서 자선의 문제점은 사회복지가 고도로 전문화됨으로써 해결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과학적 방법으로 무장한 전문성은 인간의 조건, 의학적 진보, 제도, 산업 등을 분석해 주고 해결점을 모색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20세기 초반 사회사업이 심리학적 경향으로 변화하면서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자 시도한 것이나 전문적 임상사회복지사 양성을 주 교육목표로 하는 한국 사회사업대학 교육 등이 그 예이다.²⁸⁾

전문성을 가진다는 것은 고도의 이론과 높은 가치를 함유한 지식을 기초로 합법적 자율성과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는 특수하고도 복잡한 지식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그의 업무는 자율적이라야 하고 오직 원리에 의해서만 인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전문가와 관련된 이러한 가정은 자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증가된 권위와 책임을 얻기 위해 전문가가 되고자 하지만 전문가집단의 보수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매우 힘겨운 일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진실로 대중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해 주기 위한 방법이며 전문가는 진정으로 그들의 지식을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하는가, 혹은 전문가는 위험가능성 없이 자율성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등의 질문도 나온다. 예컨대 장기간의 학습과 시험, 훈련 등에 의해서만 자격증을 부여하는 전문성의 제도화는 시초에는 질 낮은 서비스로부터 공공을 보호하려는 시도였으나 점차 소비자대중에 대한 전문가의 서비스독점을 초래한 것 등이 그 예이다. 전문적이 이타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빈민, 소수집단들은 사회의 주류계급보다 전문직의 관심을 덜 받는다고 지적되곤 한다.²⁹⁾ 이러한 비판을 고려할 때 전문성의 추구하고 확립이 일면 사회복지의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전문화를 추구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서 나오는 정치, 사회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27) Douglas P. Biklen, 1983, p. 75.

28) 장인협, 1996, 제1장 참고.

29) Douglas P. Biklen, 1983, p. 74.

V. 사회사업의 사회적 기능과 정체성대안의 전제

1. 사회사업의 원조대상의 통합적 인식

현대자본주의사회는 일면에서 여전히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존재한다. 즉 한편에 소수가 통제되지 않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다수가 소외된 노동에 종속되어 있다. 산업에서의 독점화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수와 노동으로 살아 가야 하는 다수사이의 격차를 강화시켜 최근의 논의에서 보듯이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증가시켰다. 이는 차별적인 소득구조 때문에 인구의 다수가 재산형성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 노동계급은 소득의 대부분을 의식주, 자녀교육비 등에 지출함으로써 자신들과 가족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소비해야 하므로 재산의 확대형성이 어렵고, 사회의 부와 비교할 때 이들 다수의 생활수준은 상대적 빈곤으로 특징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는 사람을 빈궁하게 만든다. 빈궁(Verelendung)은 스스로 자립할 가능성을 상실한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의미있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한 것을 뜻한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문화, 사회적 발달은 인간의 개발이나 사회적 욕구의 해소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최대이윤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생산을 목표로 한다. 반면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는 필연적으로 비용요소로 간주되며 이를 토대로 임금을 지불받지만, 이들이 받는 임금만으로는 소유와 안정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만으로 살아 가는 자에게는 항상 질병, 재해, 실업 등과 같은 불행이 닥칠 때 빈곤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계급의 영락(Deklassierung)이라는 위험가능성은 자본주의체제내에 내재하는 가능성이다. 이윤극대화의 논리를 따라 가변자본이 최소비용요소로 다루어 지는 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활의 하락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기 때문이다.³⁰⁾ 그러므로 현대 사회의 사회문제를 개인의 심리사회적 문제에만 치중할 수 없으며 빈궁의 의미도 단지 물질적인 개념으로서만 한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인의 빈곤은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소외된 것을 뜻하며 그 결과는 손상되고 사회적으로도 위축된 인성으로 나타난다. 한 인간의 손상은 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빈궁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의식주의 곤란, 풍요로운 환경속에

30) 최근의 한국현실에서 이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기업의 경쟁논리에서 힘을 발휘하는 정리해고나 명예퇴직등으로 실업자가 되는 많은 노동자들은 (육체노동자 뿐 아니라 사무직노동자를 포함하여)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안전장치마저 부족한 속에서 다양한 정도의 계급하락을 받아 들여야 한다.

서 생활할 가능성의 제한, 질 낮은 자격,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사회의 커뮤니케이션과 문화로부터의 소외, 고독, 신체적, 심리적 질병 등을 의미할 수 있다. 개인의 물질적 빈곤과 사회심리적 문제, 정신적 부적응의 문제를 서로 분리시켜 보지 않고 왜곡된 사회관계의 표현으로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사업의 원조대상이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사업원조 성격의 재조명

인간의 생활토대로서 노동에 대한 분석은 노동이 인간생활의 생산 및 재생산의 변증법적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생산과 영유가 분리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조건하에서 노동자는 단지 자신과 가족의 재생산을 위하여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상품으로 판매하여 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동해야 한다.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로부터 배제되고 그럼으로써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참여를 통한 인성의 개발이 제한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에 부합하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주지하다시피 개별적 빈곤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에 사회사업이 개인적 빈곤현상을 토대로하는 재생산조치만을 실시하는 경우(개인의 적응력과 노동의사를 높혀 주는 상담활동, 치료, 재활원조 따위), 이는 오히려 사회적 노동분업안에서 생산과 영유를 더욱 분리시키고 생산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외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는 생산과 영유과정의 통합을 토대로 '통합된 인성'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생산관계에 개인이 더욱 잘 적응하도록 함으로써 그 관계를 공고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의 노동분업안에서 재생산에 복무하는 사회사업은 동시에 사회적 서비스제도의 일부로서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주로 물질적, 신체적 빈곤, 즉 기아나 불구 등이 큰 사회문제였고 따라서 초창기 사회사업도 주로 물질적 원조와 건강보호가 중심이었다. 후기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도 물질적, 신체적 빈곤이 아직도 문제이지만 그 양상은 보다 복잡해져서 과거 주로 문제가 되었던 신체적 불구는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직업병, 즉 암, 심인성 질환, 심장순환계질환, 위장병, 우울증, 분열증 따위 정신질환 등으로 복잡해졌다. 바로 이런 점에서 사회사업의 원조도 단지 물질적 원조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원조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사회사업은 빈민의 냄새를 벗어 버리고 전문적 직업으로 발달하기 위하여 심리사회적 원조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업무를 통하여 물질적,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심리사회적 원조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사업을

물질적, 사회적 관계가 인간을 통해 생산되는 사회적 노동의 일부라고 본다면, 비록 직접적 생산노동으로서가 아니라 비생산적인 노동이라고 해도 생산을 위해 필연적인 특성을 갖는 한, 사회사업은 그 업무를 통하여 물질적,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사업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여러 측면을 통해 가능하다. 사회사업은 클라이언트에게 소외되고 제한된 조건들을 재정적 원조나 기회의 원조, 심리사회적 원조 등을 부여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 원조는 노동력의 재생산과정에 대한 직접적 원조이거나 생존보장을 위한 원조일 수 있다. 사회사업의 원조가 원조뿐 아니라 통제에도 기여하며, 물질적, 심리사회적 원조가 빈곤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결과를 완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은 사회사업의 조처와 원조가 대부분 사회적 생산에 대한 참여를 상대적으로 소량만, 그리고 불완전하게 도와준다는 사실에 큰 이유가 있다. 따라서 사회사업의 원조가 개인으로 하여금 생산관계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때 이러한 비난도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적부조와 같은 물질적 원조의 확대를 통하여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회적 원조를 통하여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토록 하며(예컨대, 자조집단 등의 활성화), 사회치료적 원조를 통하여 개인이 심리적 소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교육 및 재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력개발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 따위는 사회사업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³¹⁾ 이러한 대안들은 일면 지금까지 사회사업이 주장해온 것들과 전혀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안의 초점은 이미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로 사회사업의 기능과 정체성의 토대가 어디에 있느냐와 연결된다. 즉 사회사업의 업무를 사회적으로 확고히 하고 지식과 방법을 전문화시키는 것의 목적은 단순히 전문화된 방법 개발이나 이를 통한 사회복지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사회적 생산물에서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야 하며, 개인의 인성의 발전과 이를 통한 사회적 발전과정에 대한 참여를 더 높은 단계로 높여 주기 위한 것이라야 하는 것이다.

31) Eberhard Brandt, 1983, pp. 129-134.

VI. 맺음말

이상의 관점을 토대로 할 때 사회사업의 전문성 확립도 중요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분리된 실천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정치적 조건을 사회적 불이익과 장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의 확립이 보다 더 필요하다. 사회사업은 사회관계와 구조의 변화없이 갈등을 조정하려는 기술적, 방법론적 개혁전략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 일, 의사결정과정을 민주화시키는 일, 사회적 갈등영역에서 정치적 통찰력을 개발하는 것, 사회문제의 부분화, 증상의 낙인화대신 종합적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사적이고 개별적 전략 대신 구조적, 제도적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사를 증가시키는 것³²⁾이 사회사업의 미래 지향적 방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에서 사회사업이 현대자본주의 사회제도내에서 갖는 사회적 기능과 전문사회사업의 정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고 사회사업의 원조 대상과 원조 성격을 재조명함으로써 사회사업의 기능과 역할의 대안을 찾는 출발점을 찾아 보았는데, 이제 이 출발을 기초로 보다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회사업의 방향정립을 위한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

32) Margrit Bruecker, "Gemeinwesenarbeit," Eyferth/Otto/Thiersch(Hrsg.), *Handbuch zur Sozialarbeit/Sozialpaedagogik*, Neuwied und Darmstadt:Hermann Luchterhand Verlag, 1987 참고.